

01 교회소식

하나님의 사랑, 권능!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하시며 권능을 통해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계신다.

02 생명의 말씀

'선' 시리즈

나이만의 선은 복되고 선한 소식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믿음의 증거의 행함, 받은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변함없는 중심이다.

03 기획특집

“나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으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에도 이만하고, 평소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본다.

04 간증

응답과 축복이 넘쳤던 은사 집회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로 국가는 물론 해외에서도 각종 질병이 치료되고 믿음의 소원에 응답받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다.

만민뉴스

제965호 2022년 4월 3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가 은사 집회 시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들고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인도에서도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산소성 뇌손상

아미트 성도

지난 3월 13일, 아내가 출산하였는데 아기가 울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뇌에 산소가 도달하지 않았고, 눈도 뜨지 못하며,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않았지요. 의사는 아기가 위독하니 다른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하였습니다. 급히 큰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유튜브에서 환자 기도를 찾았고,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 기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힌디어로 된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받은 뒤, 연락처가 있는 텔리만민교회에 전화를 하여 아기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텔리만민교회에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우상 숭배를 한 것과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죄들을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은사 집회를 준비하며 서울 만민중앙교회 작정 다니엘철야에 참석해 기도하였지요. 3월 19일에는 영상 통화를 통해 김상휘 목사님(텔리만민교회 담임)께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를 받았고, 23일에는 작정 다니엘 철야를 랜선으로 참석하여 이복님 원장님(만민기 도원)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기가 팔다리를 움직이고 눈을 뜬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아기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유튜브 GCNTV HINDI 채널을 통해 만민중앙교회의 각종 예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서혜부 탈장

시와니 아동

지난 1월, 시와니(6세)는 복통으로 인해 음식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서혜부로 장이 탈장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과 주사를 권했지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통한 많은 기적을 보았던 터라 저희는 믿음으로 치료받

고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시와니의 고통을 통해 온 가족이 각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였고, 유튜브 GCNTV HINDI 채널을 통해 각종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일 담임 김상휘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지요.



은사 집회를 위해 작정 다니엘철야에도 참석해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시와니의 복부의 붓기가 줄어들더니 음식도 잘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족이 하나 되어 은사 집회를 준비하는 믿음의 행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시와니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지요. 초음파 검사를 다시 한 결과, 정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전신 통증 외

로쉬니 성도

저희 가족은 주님을 영접한 지 15년 된 크리스천이었지만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에서 환자 기도를 찾다가 텔리만민교회를 알게 되었지요. 저는 텔리만민교회에 전화해 이러한 저희 가족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주님을 영접한 지 15년 된 크리스천이었지만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에서 환자 기도를 찾다가 텔리만민교회를 알게 되었지요. 저는 텔리만민교회에 전화해 이러한 저희 가족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텔리만민교회에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십자가의 도' 등을 전해 주며 유튜브 GCNTV HINDI 채널을 통해 예배에 함께할 것을 권했습니다. 만민을 만난 후 문제 해결을 받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 성도들의 간증도 전해 주었지요. 저희는 '십자가의 도'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3월 은사 집회에 참석해 기도 받은 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나타났지요. 저는 관절과 목, 눈 등 전신에 통증이 있었는데 기도 받은 뒤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딸 라다(32세)는 네 살 때 간질 증상이 나타나 심하게 발작한 후 장애인이 되어 스스로를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나 목욕 등 일상생활을 하려면 제가 도와주어야만 했지요. 말

을 할 수도 없었고, 어떤 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받은 뒤 혼자 식사도 할 수 있고 많이 호전돼 가족 모두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며느리 아누(27세)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손과 다리, 몸에 통증이 있어서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사 집회에 참석한 후 자고 일어나니 온몸의 통증이 사라져 집안일도 잘할 수 있게 되었지요. 손자 반시(3세)도 한두 달 기침으로 인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잘 먹지 못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침하지 않고 잘 먹고 잘 놀입니다. 이처럼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나아만의 선(善)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니라”(누가복음 4:27)

나아만은 이스라엘과 인접한 나라, 곧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지요. 하지만 그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문둥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왕하 5:1).

아무리 좋은 약과 최고 의술, 자신이 섬기는 신을 의존해 보아도 치료를 받지 못했던 그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 하나님 권능으로 깨끗이 치료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무리 큰 권능을 행하는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 해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마음이 선해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이라야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니라” 말씀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행함을 보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나아만 장군의 선은 무엇일까요?

1. 복되고 선한 소식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나아만 장군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모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라고 말하지요.

결국 이 말이 나아만 귀에도 들리게 되었고 나아만은 그 계집종의 말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왕 다음가는 권세를 지닌 지체 높은 신분이지만 하찮은 종의 말도 흘려듣지 않을 만큼 마음이 겸손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말은 선한 소식이며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이처럼 복되고 선한 소식을 들을 때에 전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선하다고 인정하십니다.

만일 나아만의 마음이 강팍했다면 “네가 무엇을 안다

고 참견이나!” 하며 계집종의 말을 무시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응답해 주십니다”라고 전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선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말을 듣고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욱이 지위가 높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떻게든 세상에 의지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전도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높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작은 계집종이 전한 복된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선하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2. 복된 소식을 듣고 믿음의 증거를 행함으로 온전히 나타내는 마음

나아만은 계집종이 알려 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종들을 시켜 “모셔 오라” 하거나 서신을 띄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선지자를 찾아 나섰지요.

또한 열왕기하 5장 5절 후반절에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십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치료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이처럼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한 것입니다(마 6:21).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심지 않고 거두길 바라거나 심은 것 이상을 바라는 요행이 아니라 정녕 응답받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해 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좇아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십니다.

나아만은 병든 몸을 이끌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직접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얼굴도 보이지 않은 채, 다만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으면 문둥병이 나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노하여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며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하지요. 단지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으면 낫는다고 하니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믿음으로 나아왔다고 했지만 아직은 자기적인 생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고, 더욱이 직접 기도해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환을 통해서만 전하니 오히려 자신을 우습게 여긴다는 생각이 들어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나아만이 얼마나 선하고 겸손한 사람 인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아만에게 그 종들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더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말하지요(왕하 5:13).

여기서 특이한 점은, 한 나라의 군대장관으로 왕 다음가는 권세를 지닌 나아만에게 종들이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화가 나 있는 나아만에게 종들이 아버지라 부르며 권면의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평소 그가 얼마나 선하고 겸비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종들의 말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들을 줄 알았으며 옳고 좋은 건이라면 받아들이는 넓고 큰마음을 지녔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종들이 나아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었지요.

성도님들은 자녀나 동료, 이웃에게 어떤 건의나 권면의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들으셨는지요? ‘감히 내게 그런 말을 해?’ 하며 불평한 마음을 갖지는 않으셨는지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무시해 버린단다가 편잔을 준다든가 외면해 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혹여 “나도 알고 있다”며 상대의 말을 중간에 끊어 버리셨는지요?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편안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꼭 필요한 말을 할 때도 눈치를 살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마음이 선하고 겸손했기에 그의 종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김진홍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코로나로 인해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재록 목사의 대표 저서

URIM BOOKS

<p>십자가의 도 62개 언어로 출간된 전 세계인의 필독서</p>	<p>천국(상·하) 천국의 아름다움과 생활, 각 처소와 상급 등 그 비밀</p>	<p>지옥 생생한 컬러 화보로 전하는 지옥의 참상</p>	<p>믿음의 분량 믿음의 본질과 성장 비결에 대한 결정판</p>
---	---	--	--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르,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이 권면할 때에도 이내 마음을 돌이켜서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었지요. 영적으로 '일곱'은 '완전함'을 뜻하는 완전수이며, 요단강의 '물'은 '하나님 말씀'을 뜻하므로 '일곱 번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아만은 세 번, 네 번 씻어도 낫지 않자 중도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일곱 번을 씻었고, 그 결과 문둥병을 치료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좇되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행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즉시로 문둥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왕하 5:14).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여기시며 선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대하 20:20).

3. 받은바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값을 줄 아는 변함없는 중심

누가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 사람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단 한 사람만 와서 사례하자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질병을 치료받기 원하거나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고자 할 때 "치료받으면 생명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막상 치료받고 응답받은 후에는 자신이 했던 말을 지키지 않고 마음이 변개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받은바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했지요.

치료받은 후에 그냥 자신의 나라로 떠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함께 온 사람들을 모두 거느리고 다시 엘리사 앞에 나와 감사의 표시를 하고, 즉시 하나님만 인정하고 섬기겠다는 다짐을 했지요(왕하 5:17).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한 번 만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선한 중심을 지녔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나아만을 택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이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임했느냐에 따라 축복의 크기와 응답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선한 마음을 갖되 행함으로 온전케 이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마음의 소원까지도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획특집

신앙 체크/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믿는가?

다윗 왕이 연단 받을 때 현실적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더 이상 그의 시대는 없는 듯했습니다. 만약 다윗의 용사들이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다윗 왕을 배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윗 왕이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그를 신뢰하고 죽음의 위협에도 끝까지 따랐습니다. 반면에 현실을 보고 자신의 유익을 좇은 사람들은 결국 배신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을 통해 희한한 능을 행하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 믿고 신뢰한 것이 아닙니다. 죽도록 매 맞고 감옥에 갇히도록 놔두신 하나님도 찬미했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놔두신 하나님도 끝까지 믿고 신뢰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신뢰는 자신의 상황과 위치, 환경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는가?

만약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만은 안 됩니다" 했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도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벗이라고도 불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 약속의 씨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 많은 사람이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사건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 서 내려온 산 떡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한 예입니다. 이때 많은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우치지 못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제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아멘" 하며 예수님을 좇았습니다.

평소 순종의 행함에 따르는가?

소년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평소 다윗이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물땀을 던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자신의 능력을 키워 보장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믿음의 행함도 없이 '기도받았으니까 되겠지' 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도

평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 이상의 일이었지만 예수님을 신뢰했기에 그 말씀에 의지해 아무 생각 없이 물 위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평소 순종하는 행함을 보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말해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진정한 신뢰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뢰를 쌓아가는 단계

1단계 _ "그럴 리가 없어"

자신이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누군가 험담할 때 "그럴 리가 없어"라고 확고하게 말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신뢰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강한 부정어 안에는 '혹여 그렇다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한 번, 두 번, 세 번 안 좋은 말을 전할 때 귀가 솔깃해지고 들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 상대를 신뢰한다면 좋지 않은 말을 듣지 않을뿐더러 '그럴 리가 없어'라는 생각 자체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단계 _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 신상에 절하지 않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풀무 불에 던져 넣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견제하실 것이며 '그리 아니하실지

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담대히 말하지요.

이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음 앞에서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가 조건적인 신뢰라고 한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무조건적인 신뢰라 할 수 있습니다. 신뢰 관계를 이뤘다면 무익한 종의 마음이 됩니다(눅 17:10).

3단계 _ "선하신 뜻이 있으실 거야"

내 생각과 정반대일 때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드릴 수 있어야 진정 신뢰하는 것입니다(사 55:9).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로 축복하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그 즉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를 믿어주며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선으로 보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단계 _ "아, 이런 마음이시구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 나이다"(창 45:5) 말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합니다. 이처럼 형들에 의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 종살이하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야곱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았기에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창 50:20~21). 진정한 신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을 뿐 아니라 그것을 깨달아 순종하는 차원입니다.


“치료와 응답과 축복, 감동이었습니다!”

지난 3월 25일 밤 11시, 은사 집회(비대면)가 전 세계에 생중계 되는 가운데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각색 질병이 치료되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은 간증들이 이어져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다.

교통사고 후유증

홍석조 집사
(59세, 1대대 4교구)


8년 전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당해 흉추 7번과 8번에 기억(기)자로 금이 갔습니다. 한 달 정도 보조대를 차고 지낸 후에도 통증은 계속되었고, 잘 때나 계단을 오를 때 매우 불편했지요. 1월 은사 집회 시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어느 정도 통증이 사라졌고, 3월 은사 집회 시에는 온전히 치료되어 불편함이나 통증이 전혀 없습니다.



온몸의 가려움증

추호임 권사
(63세, 1대대 6교구)


은사 집회 한 주 전부터 온몸이 가려워서 상처가 날 정도로 긁었습니다. 은사 집회 시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려워서 온몸을 긁었지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불평, 원망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 찬양과 기도도 감동함 속에 드렸지요. 환자 기도를 받은 뒤에는 온몸이 시원하고 전혀 가렵지가 않았습니다.



물질 축복

조경아 권사
(58세, 2대대 10교구)


은사 집회를 사모하여 걱정 다니엘철야를 한 끼 금식과 예물을 드리며 마음 다해 참석하였습니다. 특별히 8일 걱정 다니엘철야 시에는 여구역장연합회가 랜선으로 참석하게 되어 이직을 놓고 고민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를 받았습니니다. 그런데 현재 직장에서 기존 월급보다 60만 원이 인상되고, 정년 없이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손가락 관절염

정경숙 집사
(60세, 2대대 13교구)


두 달가량 왼손 검지가 많이 아팠습니다. 오므리거나 주먹을 쥘 때는 물론 만져도 아팠지요.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어서 약국에 가서 증상을 말하니 관절염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은사 집회 시 기도 받을 때 왼손이 뜨겁더니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 이제는 손가락을 움직이고 주먹을 쥐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경통

그리스띠나 벨라스게스 성도
(59세, 콜롬비아 온다)


신경통으로 인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칼로 찌르는 듯 너무나 아팠지요. 은사 집회 시 이수진 목사님께서 환자들의 병명을 부르며 기도하시는데, ‘신경통’ 하고 부르실 때 저는 일어서서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전혀 없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다리 통증

리차드 치리노스 성도
(51세, 베네수엘라 발렌시아)


약 2년 전부터 다리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쪽 다리는 통증이 아주 심했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저는 걱정 다니엘철야에 참석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은사 집회 시 기도 받았는데, 성령의 불이 임해 온몸이 뜨거웠고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고 없어지더니 극심했던 통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오십견

임은경 집사
(64세, 3대대 15교구)


지난 3월 초부터 자려고 누우면 오른팔에 통증이 왔습니다. 오른팔을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팔이 잘 안 올라갔지요. 그런데 은사 집회 준비찬양 시 충만해 온몸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저도 모르게 오른손을 들고 찬양을 하였는데 어느새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 오른팔을 올리고 돌려도 아무렇지가 않았습니다.



방아쇠 수지

방현초 권사
(60세, 3대대 15교구)


2년 전부터 방아쇠 수지로 인해 왼손을 오므렸다 폼다 할 때 통증과 함께 푹푹 소리가 났고 손가락이 잘 안 펴졌습니다. 은사 집회 시 믿음으로 치료받고자 걱정 다니엘철야에 참석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받았지요. 집회 시 기도 받을 때에도 왼손바닥이 뜨거워지더니 손가락을 움직여도 아무런 소리가 안 나고 통증도 없었습니다.



두통과 퇴행성관절염

박영자 집사
(57세, 중국 1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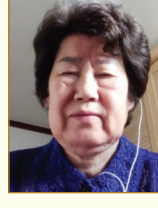
평소 일을 할 때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해 무릎보호대를 해야 했습니다. 지난 3월 초에는 두통이 심했고 어지럼증도 왔었지요. 그런데 은사 집회를 준비하던 중 20일 중국 대교구 랜선 기도회 때 통회자복을 한 후 성령의 불을 받은 뒤에는 두통이 사라졌고,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통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허리 디스크

한춘자 집사
(79세, 중국 2교구)

약 20년 전 허리 디스크 3번과 4번에 손상이 와서 수술을 해야 했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그대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허리 통증이 심해져 허리를 구부릴 수도 없고, 앉고 일어서기도 힘들었지요. 믿음으로 치료받고자 사모함으로 준비한 은사 집회 시 환자 기도를 받을 때 허리가 시원해졌고, 이후 허리를 자유자재로 움직여도 전혀 통증이 없습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임서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정평길 13 2층 ☎010-68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2-26(청운로 129)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침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